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8. 8.(목) 배포 2024. 8. 8.(목)

한 여름 밤, 별과 함께 희귀식물 보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떠나자!

“해발 600미터에서 밤 하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알파인하우스로 놀러오세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휴가철을 맞아 한 여름밤 별과 함께 세계 고산·희귀식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장해 전국의 여름 피서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직무대행 이석우)에 따르면 세계 최대 규모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는 한 여름밤 관람객들을 유혹하는 고산식물 특별전시를 개최하면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여름밤 관람객 유혹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알파인하우스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위기 취약종인 고산식물을 보전하기 위해 2,309㎡(전시관 1,402㎡) 규모의 알파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알파인하우스에서는 고산·희귀식물의 안정적 보전을 위해 동북아시아 전시관(1냉실), 중앙아시아 전시관(2냉실), 세계식물 전시관(3냉실)을 각각 가동하고 있다.

우선 동북아시아 전시관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인 중국, 일본, 몽골, 극동러시아 등에서 자라는 187종의 고산식물의 전시되고 있다.

특히 중앙부에는 고산 암석지에 서식하는 식물을 보존하기 위한 고산의 암석과 크레바스 경관을 조성하는가 하면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등의 한반도 고산 및 아고산대 식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중앙아시아 전시관에서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스칸 등 중앙아시아 튜립 원종 등 94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원예식물 중 하나인 튜립의 원산지인 산자고속(*Tulipa*), 부추속(*Allium*), 양귀비속(*Papaver*) 식물이 다양하게 전시돼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세계식물 전시관에서는 세계 고산지역인 로키산맥, 히말라야산맥, 알프스산맥 등 온대고산과 안데스산맥, 멕시코 고원, 킬리만자로 등 열대고산에서 서식하는 고산습지 식물 210종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석회석 및 괴암석을 활용한 고산경관을 비롯해 고산습지의 이탄층 경관을 연출하고 있어서 시원하고 척박한 고산지대의 특수환경을 재현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실 이재선 실장은“알파인하우스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냉실 시스템을 적용해 설계했다”며 “한 여름에도 시원한 환경에서 고산지대 식물을 만날 수 있어 많은 관람객들이 붐비고 있다”고 설명했다.

◆“희귀식물과 함께하는 한여름 알파인 꽃별 산책”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는 한여름 밤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알파인 꽃별 산책 프로그램을 오는 8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부추속(*Allium*)식물과 더불어 냉초속(*Veronicastrum*), 양귀비속(*Papaver*), 백합속(*Lilium*) 식물 등 고산식물에 대한 전문 가드너의 해설을 들으며 오카리나 연주와 함께 여름밤 별을 감상하는 시간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예약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www.bdna.or.kr) 교육예약과 코레일관광개발 홈페이지(www.korailtravel.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알파인하우스에는 연중 꽃이 피는 식물을 전시해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고, 계절별 특별전시 개최로 관람객에게 고산지대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관람을 당부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책임자	실 장	이재선 (054-679-2711)
	수목원서비스본부 전시원실	담당자	대 리	민호정 (054-679-0529)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진행되는 '한여름 알파인하우스 꽃별산책' 참여자들이 모여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며 여름밤 별을 감상하고 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알파인하우스에서 진행되는 '한여름 알파인하우스 꽃별산책' 참여자들이 가드너의 전문해설을 들으며 알파인하우스를 관람하고 있다.